

# 선물포장도 친환경 바람

### 신세계백, 추석 앞두고 스티로폼 대신 종이박스 도입 롯데백 보자기 포장...양동시장, 이마트 장바구니 사용도

지난해 폐기물 대란을 겪은 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백화점·마트 등 매장들은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선물 포장재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개념 있는 소비' 경향에 발 맞춰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선물 포장재를 내놓았다. 신세계는 우선 그간 냉장 정육 선물 포장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대신 종이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번 추석에만 전국 매장에서 2만개의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설 선물세트에도 나무와 천 포장을 썼다.

선물세트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던 보랭제도 외부 포장재를 방수 코팅한 종이로 만들고 내부는 물로 채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전복이나 굴비 포장에는 그간 부직포 가방이나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해왔지만, 아이스박스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쿨러백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사과나 배 등

과일 선물세트에 주로 사용되던 플라스틱 소재의 충전재는 종이 소재로 순차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 추석 선물세트가 8월 초부터 예약판매를 시작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있는 화장품 매장 '러쉬'는 종이 포장을 없애고 보자기를 이용한 '낙랩' (Knot Wrap) 선물 포장(8000원)을 선보이고 있다. 러쉬 코리아는 매년 지구의 날(4월22일)에 맞춰 적립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러쉬 보자기 포장은 화려한 무늬와 다양한 용도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한 부직포 장바구니(쇼핑백)는 지난달부터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양동시장 상인회는 이마트로부터 장바구니 500장을 구매해 시장 곳곳에 배부했다. 이마트는 여기에 500장을 무상 증정하고 못쓰게 되는 장바구니는 새것으로 교환해 주



롯데백화점 광주점 화장품 매장 '러쉬'는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 포장 대신 보자기 선물포장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기로 해 환경 보호에 뜻을 모았다.

광주지역 5개 이마트에 따르면 장바구니 월 평균 사용량은 2017년 1만5400여 장→2018년 1만7800여 장으로 15.5% 늘었고 올해 1분기 사용량은 2만1100장을 기록했다. 대여용 장바구니는 보증금 500원을 내고 사용한 뒤 고객만족센터로 반납시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트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장바구니 구매 접수를 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 동물복지까지 생각하는 착한 매장 급증

### 이마트, 동물복지닭 전국 출시 등 동물복지 인증 먹거리 판매 확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유통계도 동물생 명윤리를 실천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5곳을 포함한 전국 이마트 점포는 여유 있고 쾌적한 농장에서 길러진 '동물복지닭'을 4일부터 내놓는다. 이마트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생닭, 계란 등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에 비해 49.8% 증가했다.

이마트는 올해 안에 닭고기에 생산담당자 이름을 적어놓는 '품질 실명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4~10월에는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국내산 암탉지 삼겹살·목심 각 100g(냉장)을 228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화장품 매장 '더바디샵'은 '땀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땀땀'은 반려견의 애칭으로, 더바디샵은 '땀땀' (Kit)의 일부 수익금을 유기견 입양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부할 예정이다. 컨디셔너, 샤워젤, 바디로션 등 4종(각 60ml) 등으로 구성된 땀땀은 1만 2000원에 선보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고창 농특산물전 개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7일까지 복분자, 한과 등 총 80여 종의 고창 특산품을 20% 할인 판매하는 '도농 상생전'을 연다. 3일 유기상(가운데) 고창군수와 박상영(왼쪽 두번째)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이 고창 애플수박(1kg 6300원)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육아·출산용품 '착한가격'으로 만나세요"

### 롯데아울렛 수완점 10일까지 최대 90% 할인 행사 진행

롯데아울렛 수완점이 4~10일 육아·출산용품 브랜드 7개와 함께 최대 9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롯데쇼핑의 지역 상품기획(MD)팀이 신설된 뒤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아동용품 행사이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기부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행사 기간 동안 매장 1층에서 '에프와', '아가방' 등 '아가방컴퍼니' 브랜드 7개와 함께 총 30억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할인 판매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출산용품이월 상품을 최초 판매가 기준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방수·속삭개(1만원)와 겹싸개(2만원) 등 출산용품과 '베베' 보행기(3만 9000원), 기내반입 유모차(9만9000원) 등 발육용품이 매대를 꾸민다.

'아가방'과 '에프와' 내의는 5900원에, 로션 등 화장품류는 최초 판매가 대비 전 상품 80% 할인가로 선보인다.

이동호 롯데아울렛 수완점장은 "지역에 MD팀이 신설된 이후 아동 행사로는 최대 규모의 '착한 가격' 행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땀·물에도 화장 끄떡없어요" (주)광주신세계 화장품 매장 '시크르'에서 3일 한 고객이 여름철 화장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어반디케이'의 '썸머 픽서' 제품을 써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역  
연세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속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  |   |                         |
|--|---|-------------------------|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br>부위별로 특별하게!<br>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편안한 착용감<br>탄성GOOD! 흡발습GOOD!<br>일본 도레이社 LYCRA<br>별단면육각형 사용 |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br>원적외선 기공 |
|--|---|-------------------------|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